

지역 소식 통

고창군 '우리동네 복지보안관', K-공감에 소개

민선8기 고창군의 대표적 사회복지 정책 '우리동네 복지보안관'이 정부 정책홍보 주간지 K-공감에 소개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동네 복지보안관'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마을 내 취약계층의 복지위기를 조기에 발견·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보안관은 주 3회 마을을 순회하며 위기가구를 살펴보고,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읍·면 맞춤형복지팀에 연계한다.

2025년 현재 80여명의 어르신들이 복지보안관으로 활동 중이며, 2025년 6월 현재까지 300여건 이상의 사례를 발굴해 다양한 행정·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중 독거노인, 중증질환자, 치매 의심 가구, 주거환경 취약 가구 등을 발견하여 읍면 맞춤형복지팀에 연결해 위기 개입이 이루어진 사례들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낚시어선 안전운행 관련 규정 정비 간담회

부안군은 지난 3일 격포어촌계 회관에서 낚시어선 안전운행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안군과 부안해양경찰서, 낚시어선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 부안군 고시로 된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지시 및 승객의 준수사항'의 미비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썰음 운항 등 낚시어선 선정의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운항 횟수 제한과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영업금지 구역 지정, 기상 악화시 영업의 일시정지, 인명 안전 설비의 정상 기능 유지 및 출항 전 점검 의무화, 양식장 주변이나 협수로,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기업이 성장해야 정읍이 커진다”

이학수 시장, 기업인과 간담회... 지역산업 발전·미래 비전 논의

정읍시가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산업 발전과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시는 지난 4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바이오·미생물 특화기업, 청년 기업, MOU 체결 기업 등 80여명의 기업인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9년 연속 선정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8기 주요 산업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학수 시장은 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이 곧 정읍의 미래”라며 “시장에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함께 뛰고, 함께 성장하는 정읍을 만들겠다”며 “청년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힘쓰



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민선8기 들어 투자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 왔다. 18개 기업으로부터 총 134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320명의 고용 창출도 달성했다.

이어 함께 전북IP 바이오진흥센터 유치,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건립(국비 180억원 확보), 반려동물 산업 기반 조성, 그린바이오 미생물 GMP 생산동과 AI 첨단분석시스템 공유 인프라 구축 등 미래산업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또한 첨단과학산업단지과 제3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농생명, 첨단소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기업협의체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민간과의 협업 기반도 강화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산업 기반 확장을 위해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 첨단의료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5020억원) △농생명 첨단산업단지 확장(340억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한 청년창업 허브 구축(365억원) △반려동물 연관 산업 혁신지구 지정(317억원) △국가바이오 자립 산업화 허브 구축(380억원) △우주방사선 신소재 테스트베드 구축(25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이를 통해 바이오 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산업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치권 · 유관기관 전략적 협력

정읍시, 국가예산 확보 총력... 국가예산 중점 확보 정책협의회

정읍시가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도로망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정치권과 유관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에 나섰다.

시는 지난 2일 북면 행복센터에서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염영선 전북자치도의원,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예산 중점사업과 관련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공평~북면 국도대체 우회도로(국도22호선) 신설 △정읍 칠보~임실 덕지 구간(국도30호선) 개량 △부전~칠보 구간(국가 지원 지방도49호선) 시설 개량 △북면~칠보 지방도 708호선 확포장 등 총 4개 교통사업이 집중 논의됐다.

이학수 시장은 사업 추진 현황을 설



명하며 도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번 도로 사업은 정읍의 성장 잠재력과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국가예산 반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염영선 도의원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역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지역 해수욕장 5곳 일제 개장... 손님맞이 본격화

변산 · 격포 · 고사포 · 모항 · 위도 해수욕장 45일간 운영... 야간개장 · 안전 강화 병행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개장 전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구조장비 등을 점검하여 개장 준비를 완료하고 지난 4일부터 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위도 등 5개 해수욕장을 일제히 개장하여, 본격적인 여름 피서객 맞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해수욕장 운영은 8월 17일까지 45일간 진행되며, 하루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폐장 후에도 해수욕장 이용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및 편의 시설 운영을 8월 31일까지 유지하며 관광객

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94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총 4,000여 점에 달하는 안전시설과 장비도 점검을 마치고 각 해수욕장에 적정하게 배치된 상태다.

특히 변산해수욕장은 관광객 편의를 위해 7월 19일부터 8월 3일까지 16일간 야간개장을 실시,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함에 따라 야간 방문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야간 이용객 편의시설, 안전관리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폭염 속에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강풍 등의 대비를 위해 서도 시설물 관리 등 해수욕장 운영 전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이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4만2,900명의 생수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운영되는 양심냉장고는 1대당 하루 약 500ml 240명의 생수가 비치되며, 생수는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채워진다.

또한 고창군은 앞으로도 주민 통행이 많은 곳에 추가 설치 장소도 검토 중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민선8기 3주년... 이학수 정읍시장, 현장과 소통으로 감사 전례

민선8기 3주년을 맞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현장 근로자 오찬, 직원 배식 등을 통해 시민과의 동행에 감사를 전하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4일, 환경관리원과 교통지도원, 도로보수원, 하수도 준설원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청 소속 근로자 20여 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오찬은 폭염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작업 환경 개선과 장비 보강 등 실질적인 애로사항



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지난 3년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현장근로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과 장비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시청 구내식당에서 분청 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접 배식에 참여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시장은 “지난 3년간 시민을 위한 행정을 성실히 수행해준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에 함께해달라”고 격려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고창군보건소가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과 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 8곳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검사는 대형숙박시설, 노인 복지시설, 분수대,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8개소에서 18건의 검체를 채취해 이뤄졌다.

레지오넬라균은 제3급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의 원인균으로, 냉각탑수, 급수시설, 샤워기, 욕조수 등

물을 매개로 공기 중에 퍼져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

특히 여름철 냉방기 사용이 활발한 시기에 감염 위험이 높아지며, 고령자나 면역저하자의 경우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시에는 고열, 오한, 기침, 전신 피로감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며, 집단발병 사례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점검과 사전 예방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는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